

나폴레옹

프랑스의 혁명가이자 군인, 그리고 독재자였던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이 낳은 영웅적 인물입니다. 승승장구하던 그는 러시아 원정 실패 이후 패배를 거듭하며 1814년 파리가 함락당하며 황제에서 폐위 당하고 엘바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후인 1815년, 나폴레옹은 유배되었던 엘바 섬을 탈출하여 파리로 다시 진격해 들어와 복위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당시 프랑스의 유력신문인 르모니퇴르(Le Moniteur)지는 엘바에서 파리까지의 시시각각 상황을 파악하여 신문에 아래와 같이 보도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폴레옹을 대하는 신문의 태도가 흥미로운데요. 여기 그 신문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괴수, 동굴을 떠나다.
- 코르시카의 흡혈귀, 후안 만에 상륙
- 성난 호랑이, 가프에 나타난다.
- 야수, 그르노블에서 밤을 보내다.
- 독재자, 리옹에 다다르다.
- 찬탈자, 파리로부터 60마일 지점에서 목격되다.
- 황제, 퐁텐블로에 당도하다.
- 황제 폐하, 어젯밤 툴리 궁전에 입성

1815년 2월 15일 나폴레옹이 엘바 섬을 탈출하여 한달이 갓 지난 3월 20일 파리에 무혈 입성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강자에 약한 언론의 속성이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지요.

ナポレオン

フランスの革命家であり軍人、そして独裁者だったナポレオンはフランス革命が生んだ英雄的人物です。勝勝長駆であった彼はロシア遠征失敗以後敗北を繰り返えして 1814 年パリが陥落されて皇帝の座から廃位されエルバ島に追放されました。



そしてわずか1年後の1815年、ナポレオンは島流しされたエルバ島を脱出してパリでまた進撃して入って来て復位するのに成功するようになります。その当時フランスの有力新聞であるルモニトエル(Le Moniteur)紙はエルバからパリまでの時々刻々状況を把握して新聞に下記のように報道をしました。時間が経つにつれてナポレオンに対する新聞の態度が面白いです。ここにその新聞見出しを見るようにします。

- 怪獣、洞窟を離れる。
- コルシカの吸血鬼、フアン湾に上陸
- 怒った虎、がブに現われる。
- 野獣、グルノーブルで夜を過ごす。
- 独裁者、リヨンに至る。
- 篡奪者、パリから60マイル地点で目撃される。
- 皇帝、フォンテンブローに到着する。
- 皇帝陛下、昨晚トイルルリ宮殿に入城

1815年2月15日ナポレオンがエルバ島を脱出してひと月が過ぎた3月20日パリに無血入城するまでの過程です。強者に弱い言論の属性がどうかを如実に見せてくれる事例だと言えますね。